

1. 천식의 정의

- 천식은 만성 기도염증을 특징으로 천명,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아토피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항원,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 특히, 담배연기, 가스, 강한냄새, 운동과 같은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며, 밤에 악화되고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2. 천식의 치료

- (치료약제) 천식 치료약제는 조절제와 증상완화제가 있다. 조절제는 항염증효과를 통해 천식 증상이 조절되도록 장기간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약제이며, 증상완화제는 신속히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제로서 필요 할 때만 사용한다.
- 흡입스테로이드제는 현재 사용하는 조절제 중에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약제를 직접 기도에 전달하고 고농도의 약제가 기도점막으로 투여되며, 전신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류코트리엔조절제는 약간의 기관지 확장효과와 기침감소, 폐기능 호전, 기도염증을 감소시키는 약제로,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 흡입스테로이드에 심한 부작용을 보인 환자, 혹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동반 한 환자 등에 사용된다.
- (면역치료) 면역치료는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치료로 임상증상과 부합하는 알레르기 항원이 밝혀지면, 피하주사를 통해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 (위험인자의 관리 및 예방) 알레르기항원, 바이러스 감염, 공기오염, 약 등 '유발인자'에 노출을 줄이거나 피하여야 한다.

2015년(3차) 천식 걱정성 평가

1. 배경 및 목적

-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외래 민감성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 ACSC)임
 - 피할 수 있는 천식 입원율(인구 10만 명 당)¹⁾ : 한국 98.5명, OECD 평균 43.8명
- 천식은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질환으로, 관리가 중요함
 - 환자수 166만 명(총 진료인원의 3.55%), 진료비용 2,635억 원(총 진료비용의 0.47%)²⁾
 -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6위³⁾
- 이에 평가를 통해 천식 환자관리의 질 향상 도모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평가대상

가. 대상기간 및 자료

- 대상기간 : 2015년 7월~2016년 6월 진료분(연단위 평가)
- 대상자료 : 천식(J45, J46)이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나.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천식(J45, 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1) Health at a Glance 2013(OECD, 2015)

2) 천식 주상병(J45,J46)기준 (출처: 진료비통계지표 2015.1~12월 심사실적 자료, 건강보험)

3) 주요 상병질환의 경제적 부담 측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 정립을 위한 연구(2009)

다. 대상자(천식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에 천식(J45, 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로서,
 -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가 있고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에 있는 환자

3. 평가기준

영역	지표명	지표설명	지표해석
검사	폐기능검사 시행률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기능 검사를 1회 이상 시행한 천식환자의 비율	높을수록 좋은 지표
치료 지속성	지속방문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3회 이상 천식진료를 받은 천식환자(지속방문 환자)의 비율	
처방	ICS 처방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ICS(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천식환자의 비율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ICS(흡입스테로이드) 또는 LTRA(류코트리엔조절제)를 처방받은 천식환자의 비율	
	ICS 없이 LABA 처방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ICS(흡입스테로이드)없이 LABA(지속성베타2항진제)를 처방 받은 천식환자의 비율	낮을수록 좋은 지표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ICS(흡입스테로이드)없이 SABA(속효성베타2항진제)를 처방 받은 천식환자의 비율	
	ICS 없이 OCS 처방 환자비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ICS(흡입스테로이드) 없이 OCS(경구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천식환자의 비율	

- 주 1. ICS : Inhaled Corticosteroid, 흡입스테로이드
 2. LTRA :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류코트리엔조절제
 3. LABA : 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항진제
 4. SABA : 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항진제
 5. OCS : Oral Corticosteroid, 경구스테로이드

4. 평가결과

가. 평가대상 현황

- 대상기관 : 16,950개소 (의원 : 14,932개소, 88.09%)
- 대상자(천식환자) : 776,882명 (의원 : 619,775명, 79.78%)

나. 지표별 평가결과

- (검사 영역)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28.34%로 낮아, 개선 필요
- (치료지속성 영역) 연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72.02%로,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추이 관찰 필요
- (처방 영역)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30.62% 등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이 낮아, 개선 필요

(단위 : %)

영역	지표명	평가결과	
		전체	의원
검사	폐기능검사 시행률	28.34	20.09
치료지속성	지속방문 환자비율	72.02	69.70
처방	ICS 처방 환자비율	30.62	20.09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63.65	56.21
	ICS 없이 LABA 처방 환자비율	16.77	19.91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12.92	15.08
	ICS 없이 OCS 처방 환자비율	28.20	33.07

- 주 1. 전체는 8개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값임
 2. ICS : Inhaled Corticosteroid, 흡입스테로이드
 3. LTRA :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류코트리엔 조절제
 4. LABA : Long-Acting Beta2 Agonist, 지속성베타2항진제
 5. SABA : Short-Acting Beta2 Agonist, 속효성베타2항진제
 6. OCS : Oral Corticosteroid, 경구스테로이드

공개기관(양호기관) 선정기준 및 지역별 현황

1. 공개기관 :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양호기관)

- 천식은 만성질환으로 가까운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질병 악화 및 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환자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양호기관)의 명단만 공개함

2. 공개기준(양호기준)

- (환자수) 평가대상자가 10명 이상인 의원 중,
- (선정기준) 해당 평가지표별 결과가 모두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함
 -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ICS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 (제외기준) 단, 그 외 평가지표 결과가 하위 10% 수준인 기관은 제외함

3. 공개기관(양호기관)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의원 평가대상 기관수	평가대상자 10명 이상 기관수(A)	공개기관(양호기관)		
			기관수(B)	비율(B/A)	
전체	14,932	8,762	1,419	16.19	
서울	3,242	1,817	371	20.42	
강원	412	232	39	16.81	
경기	인천	773	470	77	16.38
	경기	3,361	1,983	308	15.53
경상	대구	790	466	86	18.45
	울산	293	162	19	11.73
	경북	720	435	64	14.71
	부산	1,049	621	99	15.94
	경남	852	550	62	11.27
충청	대전	495	274	51	18.61
	충북	467	268	27	10.07
	충남*	684	404	50	12.38
전라	광주	419	256	42	16.41
	전북	604	375	58	15.47
	전남	599	350	45	12.86
제주	172	99	21	21.21	

※ '세종'은 충남에 포함